

백두대간 관광개발이 지역애착과 관광태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공변량구조모형의 적용

주성현 · 박상준 · 한상열*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임학과

The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 Baekdudaegan Tourism Development : An Application of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Sung-Hyun Joo, Sang-Jun Park and Sang-Yoel Han*

Dept. of Forestry,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요 약: 본 연구는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따른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인이 농산촌주민들이 인지하는 지역애착과 관광개발태도와 개념적으로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졌다. 연구방법은 이들 요인들 상호간의 구조관계를 공변량구조모형의 일종인 LISREL 분석에 적용하였다. 조사대상지는 백두대간이 분포하고 있는 경상북도 영주와 문경시 지역주민 356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편익이 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보다도 직·간접적으로 지역주민의 관광개발태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요소는 지역애착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분석된 반면, 경제적·환경적 요소는 지역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광개발태도는 지역애착에 의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일반적인 사회교환이론과는 달리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대하여 관광산업과 관련된 주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적 편익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일 수 있는 사회적·환경적 요인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nceptual structure of residents' perception among tourism development impacts (economic benefits,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s the effects of Baekdudaegan tourism development. This paper was adopted LISREL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 approach, co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provided some insights on tourism development. Data of 356 were collected from Youngu and Mungyeong cities surrounding Baekdudaegan in Gyeongsangbuk-do. The results indicate that perceived economic benefits are rather greater impacts on attitudes than perceived social and environmental ones directly and indirectly. Also, perceived social impacts influence community attachment, however, perceived economic benefits and environmental impacts do not influence community attachment directly. Finally results reveal that the attitudes for supporting tourism development were found positively influenced by the identity of community attachment. Differently social exchange theory, the results suggested that residents' attitudes towards Baekdudaegan tourism development perceived positive strongly even a non related tourism resident.

Key words : Baekdudaegan, community attachment, attitudes, social exchange theory, co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 LISREL

서 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산촌은 도시에서의 집적(集

積) 이익에 따른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지로서의 역할에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이성우 등, 2003a). 산업화와 도시화가 고착화된 지금 농산촌을 바라보는 시각은 낙후지역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윤여창, 유순호, 1995). 농산촌의 이탈 현상 또한 과거 도시민과의 소득격차가 주요 원인인 반면, 교육, 주거환경, 의료시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불균형이 확산되어

*Corresponding author

E-mail: syhan@knu.ac.kr

본 연구는 2007년도 “경상북도 백두대간 자원실태 조사 및 주변지역 활력증진 방안” 연구용역 결과의 일부임.

인구유출과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지금까지 낙후지역으로만 인식 되었던 농산촌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농산촌지역 개발은 국가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식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생적 지역개발방식의 도입이 새로운 국토개발방식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이성우 등, 2003b).

하나의 사례로 EU와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도시화 및 산업화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되었지만 이와는 반대급부적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고 양호한 농산촌지역을 조건불리지역(Less Favored Area, LFA)으로 규정하여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WTO 협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EU의 경우 역내 조건불리지역 농산촌의 소득을 지원하고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 1975년부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일본은 조건불리지역의 토양침식 방지, 홍수방지 등 농림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할 목적으로 2000년부터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다(장우환, 2006).

한편, 우리나라의 백두대간 지역은 가장 낙후된 농산촌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자연환경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적, 사회·문화적, 관광·휴양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의 백두대간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은 자연생태계 보전과 주변 농산촌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경제 활성화라는 보전과 개발정책의 양립될 수 없는 갈등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관광개발이 가장 낙후된 산촌지역 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산림청에서도 환경시민단체와의 갈등을 빚고 있지만 '등산지원기본계획'을 통해 총 684 km의 백두대간을 '국가등산로'로 지정하여, 수요자 측면에서는 등산로 주변에 야생 동·식물해설관, 경관해설관, 조류관망대 등을 설치하여 백두대간 등산객들이 숲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라 할 수 있는 백두대간 산촌지역주민에게는 등산로 주변의 산촌마을과 자연휴양림을 등산과 연계한 숙박시설로 활성화하여 산촌지역의 관광개발을 친환경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 농산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적 관광개발은 궁극적으로 친환경관광의 지속성 및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지

역주민의 합의(合意)된 지원이 필수적이다(Sheldon and Abenoja, 2001).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은 지역주민 스스로 비용(cost)과 편익(benefits)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을 동시에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다(Andiotis and Vaughan, 2003; Ap, 1992, Jurowski 등, 1997). 이는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균형적인 인식이 관광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백두대간과 같은 특이한 자연생태환경을 삶의 터전으로 하여 살아가는 농산촌지역사회의 경우에는 백두대간 관광개발이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인 지역사회와는 매우 상이할 것임으로,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평가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백두대간의 자연생태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 정책에 있어서는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영향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낙후지역으로 인식된 백두대간 농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사회·환경적 측면에서의 정주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획득과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주민이 인지하는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따른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인이 농산촌주민들의 지역애착(community attachment)과 관광개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분석방법은 지역애착과 관광개발 태도와 관련된 상호간의 구조관계를 경로분석(path analysis)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으로 결합시킨 공변량구조모형(covariance structure model) 적용하였다.

분석대상지역은 경상북도에 포함되어 있는 백두대간 인접 지역의 6개 시·군(김천, 상주, 문경, 영주, 예천, 봉화) 가운데 문경시와 영주시의 백두대간 인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론적 배경

1.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영향인식 및 태도

선행연구들에서는 관광개발에 따른 주민인식과 태도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의 편익과 비용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판단하여 형성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영희 등, 2005; McIntosh and Goeldner, 1990).¹⁾

¹⁾ 이들 선행연구들에서는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인식은 주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지각하는데, 경제적 영향요인은 지역주민 소득증대, 취업기회확대, 세수증대, 부동산가격상승 등이며, 사회적 영향요인은 여가기회증대, 교통체증, 범죄 등이 있다. 또한 환경적 영향요인은 자연환경훼손, 경관파괴, 수질·대기오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²⁾에 따르면 관광개발로 지역주민과 관광객간의 교환이 발생하는데, 지역주민은 관광개발로 인한 경제적 편익과 관광개발에 따른 제 비용을 교환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주민은 사회교환의 과정에서 관광개발을 평가하고 이 교환관계에서 사회적 행위 주체들은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전영철, 정병웅, 1999).

지역주민 입장에서 관광개발로 인한 관광객과의 교환을 시작하는 주요한 동기는 지역주민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획득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광개발로 인한 영향인식이나 태도는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일반적으로 지역주민과 지역 관광객과의 상호작용은 본질적으로 균형적이지 않고 비대칭적이며, 상호작용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영향인식이나 태도는 관광개발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영향인식과 태도에 있어서 관광산업에 고용된 지역주민이 관광산업 이외 타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보다 관광객이나 관광개발에 더 호의적이며, 관광개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요인(예, 교통체증, 지역고유문화 파괴, 범죄발생 증가, 쓰레기 등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민감하지 않다는 연구들에서 잘 나타난다(최영희 등, 2005; 조광익, 김남조, 2002).

2. 지역사회애착

지역사회애착(community attachment)은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장소성(sence of place)이란 지리적인 환경을 심리학적 단위로 인식하고 이를 측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최영희 등, 2005). 장소성은 장소애착(place attachment),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장소의존성(place dependence)의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장소애착은 단체 또는 개인과 환경사이의 긍정적인 결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정을 수반하고 있으며, 사회적 환경에만 연관되는 지역성(sense of community)과 차이가 있다(Pretty 등, 2003; Jorgensen and Stedman, 2001).

지역사회애착은 앞에서 설명된 장소애착을 확대하여 사회적 참여, 유대감, 정서와 같은 환경심리의 사회적 결속 수준이다(Goudy, 1990).

지역사회애착은 거주기간이나 출생지, 그리고 거주지속의향 등과 같은 거주와 관련된 물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mpson, 1988). 즉, 거주기간이 길거나 출생지가 거주지역일 경우 지역사회의 애착정도는 높다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지역사회애착은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박청인, 2000; 강신겸 2001; 고동완, 김현정, 2003).

3.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표출하는 다양한 태도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두대간 관광개발이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애착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백두대간의 관광개발은 사회교환이론을 근거로 볼 때,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의 편익과 비용 측면에서 판단하여 영향인식을 형성하며 이는 지역애착과 관광개발태도와 관련성이 존재한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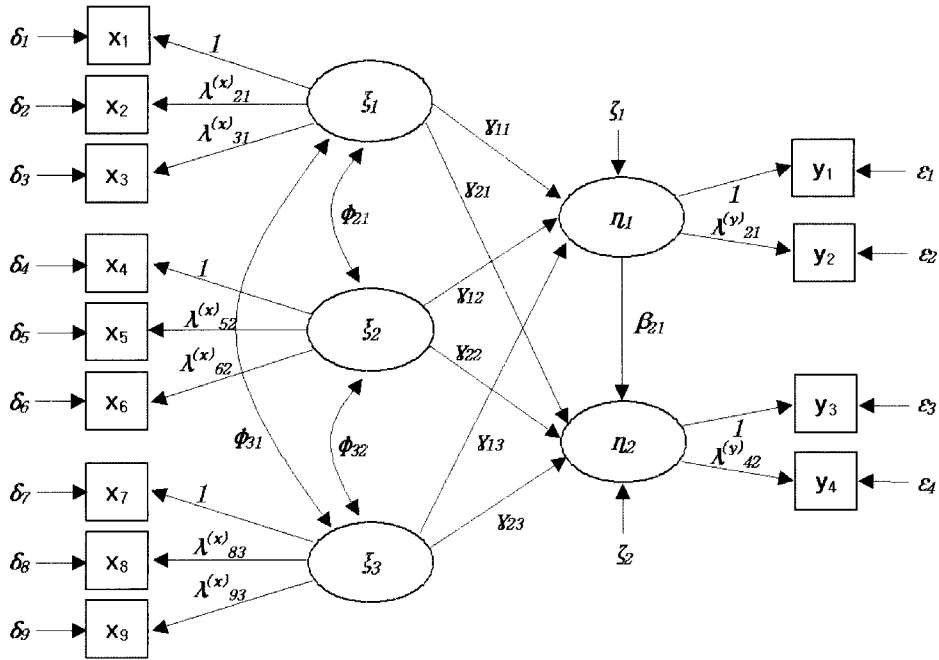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먼저 백두대간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이 지역주민의 지역애착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역애착과 관광개발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가설 1: 백두대간 관광개발로 인한 경제적 요인이 지역애착에 영향을 미친다.
- 가설 2: 백두대간 관광개발로 인한 사회적 요인이 지역애착에 영향을 미친다.
- 가설 3: 백두대간 관광개발로 인한 환경적 요인이 지역애착에 영향을 미친다.
- 가설 4: 백두대간 관광개발로 인한 경제적 요인이 관광개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 가설 5: 백두대간 관광개발로 인한 사회적 요인이 관광개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 가설 6: 백두대간 관광개발로 인한 환경적 요인이 관광개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 가설 7: 백두대간 관광개발로 인한 지역애착이 관광개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추상적 성격의 변수를 연역적으로 개념화하여 이를 측정변수로 분석하는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사전적(a priori)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림 1>의 모형

²⁾ 사회적 교환이란 교환의 상대방으로부터 보상과 같은 혜택을 받았을 때 앞으로 언젠가는 이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무감을 갖게 하는 관계로, 기본적인 성격은 호혜적(reciprocal)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교환이론의 주요 명제이다. 사회적 교환이 경제적 교환과 다른 점은 받은 혜택에 대한 보답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며, 보상은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존경, 사랑, 충성, 인정 등과 같은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인 보상까지 두루 포괄한다(전영철, 정병웅, 1999).



ξ_1 : 경제적 요인 x_1 : 지역주민 소득증대 x_2 : 지역주민 고용증대 x_3 : 관광활성화 증대
 ξ_2 : 사회적 요인 x_4 : 지역공동체의식 약화 x_5 : 지역 시·군과의 협력
 x_6 : 지역 산업체와의 교류
 ξ_3 : 환경적 요인 x_7 : 청정자연환경 이미지 훼손 x_8 : 주민들의 환경의식 향상
 x_9 : 쓰레기 등 환경오염 증가

η_1 : 지역애착 y_1 : 거주지속 y_2 : 거주만족
 η_2 : 관광개발 태도 y_3 : 관광산업은 지역발전에 핵심 y_4 : 관광개발에 적극적 협조

x 의 측정모델: $x_{(q \times 1)} = A_{x(q \times n)} \times \xi_{(n \times 1)} + \delta_{(q \times 1)}$
 y 의 측정모델: $y_{(p \times 1)} = A_{y(p \times m)} \times \eta_{(m \times 1)} + \epsilon_{(p \times 1)}$

구조방정식모델: $\eta_{(m \times 1)} = B_{(m \times m)} \times \eta_{(m \times 1)} + \Gamma_{(m \times n)} \times \xi_{(n \times 1)} + \zeta_{(m \times 1)}$

- 여기서 x : 외생변수들의 $q \times 1$ 벡터
- y : 내생변수들의 $p \times 1$ 벡터
- ξ : 잠재외생변수들의 $n \times 1$ 벡터
- η : 잠재내생변수들의 $m \times 1$ 벡터
- δ : x 측정오차들의 $q \times 1$ 벡터
- ϵ : y 측정오차들의 $p \times 1$ 벡터
- ϕ : 잠재외생변수간의 공분산
- A_x : n 외생잠재변수를 측정하도록 설계된 q 관측변수와 관련된 $q \times n$ 회귀행렬
- A_y : m 외생잠재변수를 측정하도록 설계된 p 관측변수와 관련된 $p \times m$ 회귀행렬
- Γ : n 외생잠재변수와 m 내생잠재변수를 연결해주는 $m \times n$ 행렬계수
- B : m 내생잠재변수를 연결해주는 $m \times m$ 행렬계수
- ζ : 방정오차를 의미하는 $m \times 1$ 벡터

그림 1. 연구의 모형.

에 포함되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s)와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s)간의 관계, 잠재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 및 방향 등을 사전에 가설로 수립한 모델을 기초로 분석한다. 공변량구조분석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s) 8.0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1. 조사대상지의 선정

백두대간은 강원도 인제와 고성군의 경계인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약 680 km에 걸쳐 있으며, 그 능선

은 6개 도, 12개 시, 20여개 군에 걸쳐 있는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생태축이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백두대간의 지역주민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지역에 있는 백두대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상북도의 경우 김천, 상주, 문경, 영주, 예천, 봉화 등 6개 시·군과 소백산, 속리산 등 2개 국립공원, 그리고 문경새재 도립공원이 백두대간에 포함되어 있다. 경상북도는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강원, 충북, 전북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백두대간 일부지역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이다. 특히, 백두대간 농산촌 오지의 경우에는 수요의 부족, 인근 도시와의 상대적 접근성 불량 등으로 행정, 의료, 복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서인원, 최정수, 2002).

그러나 한편으로 강원, 충북, 경북이 경계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국도의 중부내륙권에는 소백산과 속리산 등이 분포되어 있으며, 고유의 민족문화유산인 서낭당, 산신각, 산성유적 등 수많은 생태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다.³⁾

2. 표본추출 및 설문지 구성

백두대간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역애착 및 관광개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 가운데 문경시와 영주시의 백두대간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2007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356명(영주 209명, 문경 147명)의 지역주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개발하였는데, 조사내용은 크게 백두대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각각 3문항)과 지역애착(2문항) 및 관광개발 태도(2문항)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인구통계학적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백두대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관련된 질문들과 지역애착 및 관광개발 태도 변수들은 5점 리커드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전체적인 분석절차는 먼저 관측변수(x 와 y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 및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정은 문항간의 일관성이 있는지를 내적 일관성 검정을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관측변수들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요인 및 지역애착과 관광개발태도

개념이 타당성 있는 잠재변수인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설정된 모형을 추정하고 가설을 검정하였다.

인과구조분석을 위한 자료는 원자료(raw data)를 공분산행렬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모수추정은 최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선정된 조사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4.0%(121명)는 남성, 66.0%(235명)은 여성으로 나타났다. 백두대간 인근 조사지역인 영주와 문경지역 연령평균은 42세이며 응답별 학력분포는 고졸이상이 71.6%(255명)으로 나타났다. 영주와 문경지역에서의 평균 거주년수는 25.1년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표본의 20.2%(72명)만이 관광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은 농림업 및 자영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술통계분석 및 구성개념의 신뢰도 검정

백두대간 관광개발이 지역주민의 지역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 결과는 평균인 3점 이상(거주지속, 3.12점, 거주만족, 3.17점)으로 나타나, 백두대간이 지역애착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개발 태도의 경우도 평균인 3점 이상(관광은 지역발전의 핵심, 3.12점, 관광개발에 적극적 협조, 3.35점)으로 나타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백두대간 관광개발이 지역의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지역관광활성화(3.60점)와 지역공동체의식 약화(부정적 질문을 긍정적 점수로 환산한 점수 3.04점)를 제외한 소득증대(2.68점), 고용증대(2.67점), 지역시·군과의 협력(2.94점), 지역 산업체와의 교류(2.99점) 등에서는 평균 이하로 나타나, 지역주민에 대한 백두대간 관광개발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환경적 요인의 경우에는 청정자연환경 이미지 훼손(부정적 질문을 긍정적 점수로 환산한 점수 3.56점), 주민들의 자연환경의식 향상(3.38점), 쓰레기 등 환경오염증가(부정적 질문을 긍정적 점수로 환산한 점수 3.19점)에서 모두 백두대간 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측정도구의 문항간에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³⁾ 경상북도 지역의 백두대간 민족문화유적으로는 산성, 서낭당, 산신각 등이 있는데, 산성의 경우에는 박달령, 고직령, 시리봉, 회양산, 부향산성, 조령, 마당치, 이립성 등이 있으며, 서낭당은 고모치, 은티재, 지름티재, 고치령, 박달령 등이 있다. 산신각은 눌재, 조령, 죽령, 고치령 등이 있다(녹색연합, 1998).

표 1. 구성개념별 기술통계량 및 신뢰도 검정.

| 구성개념 | 관찰 변수 | 변수설명 | 평균 | 표준편차 | 신뢰도 Cronbach |
|---------------------|-------------|----------------|------|-------|--------------|
| 지역애착 (η_1) | y_1 | 거주지속 | 3.12 | 1.032 | .745 |
| | y_2 | 거주만족 | 3.17 | .919 | |
| 관광개발태도 (η_2) | y_3 | 관광은 지역발전의 핵심 | 3.12 | .872 | .626 |
| | y_4 | 관광개발에 적극적 협조 | 3.35 | .803 | |
| 경제적 요인 (ξ_1) | x_1 | 지역주민 소득증대 | 2.68 | 1.058 | .658 |
| | x_2 | 지역주민 고용증대 | 2.67 | .960 | |
| | x_3 | 관광활성화 증대 | 3.60 | .927 | |
| 사회적 요인 (ξ_2) | $x_4^{(1)}$ | 지역공동체의식 약화 | 3.04 | .852 | .680 |
| | x_5 | 지역 시·군과의 협력 | 2.94 | .816 | |
| | x_6 | 지역 산업체와의 교류 | 2.99 | .922 | |
| 환경적 요인 (ξ_3) | $x_7^{(1)}$ | 청정자연환경이미지 훼손 | 3.56 | .872 | .583 |
| | x_8 | 주민들의 자연환경의식 향상 | 3.38 | .791 | |
| | $x_9^{(1)}$ | 쓰레기 등 환경오염 증가 | 3.19 | .997 | |

주) 부정적 질문이기 때문에 5점-척도는 1점(매우 그렇다)에서 5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계산하였음.

를 판단하는 신뢰도 검정인 내적 일관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성개념의 신뢰도가 환경적 요인을 제외한 모든 구성개념들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뢰도 α -값 최저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구성개념들간의 신뢰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인과분석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은 지역주민의 지역애착과 관광개발태도와의 인과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공분산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그림 2>와 같은 최적모형이 도출되었다.

관측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에서 관측변수 가운데 하나를 1로 설정하여 잠재변수에 할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잠재변수는 내생잠재변수(η)나 외생잠재변수(ξ) 모두 해당된다.⁴⁾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표본공분산행렬과 적합행렬의 차이로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 증분적합지수(increment fit index), 그리고 간명적합지수(parsimonious fit index)로 평가할 수 있다.⁵⁾

<표 2>에서 절대적합지수의 X^2 값이 157.57($p=0.00$)로 높게 나타났으나, 간명적합지수의 표준 X^2 (normed X^2 , X^2 을 자유도로 나눈 값)는 2.86으로 3.0보다 낮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절대적합지수(GFI=.93, RMR=.053)와 증분적합지수(NFI=.86, IFI=.90, NNFI=.86, CFI=.90)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명적합지수(AGFI=.89, PGFI=.56)는 높게 나타나 구조모형을 분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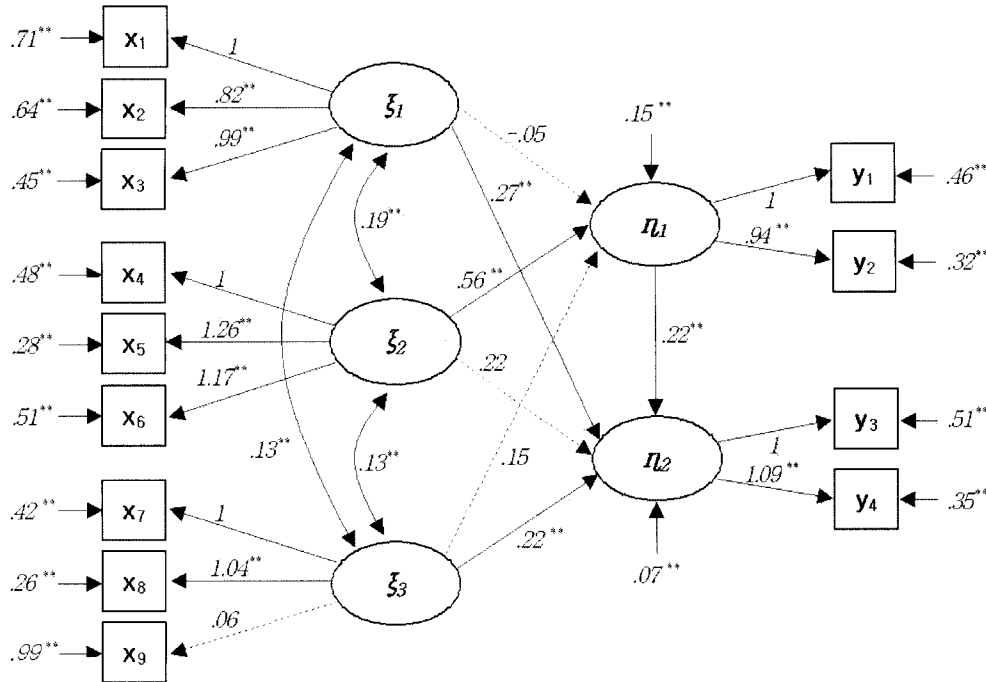
구조모형 분석결과, 관광개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이 관광개발태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27($p<0.01$)이며, 환경적 요인은 .22($p<0.01$)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애착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사회적 요소가 .56($p<0.01$)로 분석된 반면, 경제적·환경적 요소는 지역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4. 영향요인의 총효과와 간접효과

공변량구조분석의 모형설정에 따른 총효과(total effect)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계산함으로써 효과분해(effect decomposition)를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간접효과는 매

⁴⁾ 1.0으로 설정된 관측변수를 준거변수(reference variable) 또는 준거지표(reference indicator)라고 한다. 잠재변수의 척도화를 위해 준거변수를 설정할 때, 이론적·경험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론적인 면에서는 잠재변수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관측변수를 설정하며, 경험적인 면에서는 표준화 요인적재량이 가장 큰 값을 준거변수로 설정한다(배병렬,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측면을 기준으로 준거변수를 설정하였다.

⁵⁾ 절대적합지수는 제안모형이 표본공분산행렬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절대적합지수에는 X^2 , GFI, RMR, RMSEA 등이 있다. 증분적합지수는 제안모형을 기초모형과 비교한 지수로 제안모형이 기초모형에 비하여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한다. 여기에는 NFI, IFI, NNFI, CFI 등이 있다. 간명적합지수는 모형의 적합수준에 도달하기에 필요한 추정모수의 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간명도는 적은 자유도 의해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가질 때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AGFI, PGFI, normed X^2 등이 있다(배병렬, 2006).



주) * $p < .05$, ** $p < .01$

점선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2. 연구모형의 추정결과.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 구분 | 적합도지수 | 추정 |
|--------|-----------------------------|--------|
| 절대적합지수 | χ^2 차이검정 | 157.57 |
| | 적합도지수 (GFI) | .930 |
| | 평균제곱잔차제곱근 (RMR) | .053 |
| 증분적합지수 | 표준적합지수 (NFI) | .860 |
| | 적합도증가지수 (IFI) | .900 |
| | 비표준적합지수 (NNFI) | .860 |
| | 비교적합지수 (CFI) | .900 |
| 간명적합지수 | 조정된 적합지수 (AGFI) | .890 |
| | 간명적합지수 (PGFI) | .560 |
| | 표준 χ^2 (normed X^2) | 2.86 |

표 3. 거주만족 및 지역애착에 미치는 인과효과.

| 가설 | 구분 | 총효과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
| 가설 1 | 경제적 요인 → 지역애착 | N.S | N.S | - |
| 가설 2 | 사회적 요인 → 지역애착 | .56 | .56 | - |
| 가설 3 | 환경적 요인 → 지역애착 | N.S | N.S | - |
| 가설 4 | 경제적 요인 → 관광태도 | .27 | .27 | N.S |
| 가설 5 | 사회적 요인 → 관광태도 | .12 | N.S | .12 |
| 가설 6 | 환경적 요인 → 관광태도 | .22 | .22 | N.S |
| 가설 7 | 지역애착 → 관광태도 | .22 | - | .22 |

주) * $p < .05$, ** $p < .01$

N.S: .05 수준에서 유의성 없음.

개변수의 비표준화모수추정치의 곱으로 얻어진다.

유의한 경로들을 기준으로 총효과를 살펴보면 지역에

착에 있어서는 사회적 요인의 총효과가 .56이며, 관광개발태도에서의 총효과는 경제적 요인이 .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환경적 요인 .22, 사회적 요인 .12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지금까지 낙후지역으로 인식된 경상북도 문경과 영주지역의 백두대간 인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인지하는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따른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인이 농산촌주민들의 지역애착과 관광개발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 상호간의 구조관계를 공변량구조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애착은 사회적 요인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만 지지되었고, 가설 1과 3은 기각되었다. 이는 지역애착과 관련된 요인은 경제적·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는 경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의 경우에는 직접효과는 기각된 반면, 지역애착을 경유하는 간접효과에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 5, 6이 채택되었다. 여기서 백두대간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표준화계수를 기준으로 검토하면 경제적 요인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사회적 요인에는 덜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애착이 관광개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의 효과를 나타내며 유의한 인과관계로 채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애착 및 지역주민 태도는 일반적인 관광분야에서의 사회교환이론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즉, 사회교환이론에서는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있어 관광산업 관련 집단은 긍정적 영향에서는 보다 긍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에서는 보다 덜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반면, 비관련 집단에서는 긍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관광산업 종사자가 전체의 약 20%에 불과함에도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편익에 대하여 호의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일 수 있는 사회적·환경적 요인에 대하여도 호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백두대간 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편익획득에 큰 기대와 요구가 있음을 보여주며, 관광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사회·환경요인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백두대간 인근 농산촌지역이 일반 농산촌지역과 비교하여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기도 하며, 또한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백두대간 관광개발에 거는 절박한 기대와 요구가 함축되어 있는가를 시사한다.

인용문헌

- 강신겸. 2001. 지역사회 애착도가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동완, 김현정. 2003. 지역사회 애착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관광학연구 27(3): 97-114.
- 녹색연합. 1998. 백두대간 환경대답사 보고서.
- 박청인. 2000. 국립공원 취락지구 주민의 귀속감이 공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적 연구: 계룡산국립공원 취락지구의 사례연구. 국토계획 35(1): 129-138.
- 배병렬. 2006.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도서출판 정람.
- 서인원, 최정수. 대구경북의 생태관광자원 개발방향. 대구: 대구경북개발연구원.
- 윤여창, 유수호. 1995. 농산촌 정주환경 조성과 국토 활용 제고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2): 103-121.
- 이성우, 권오상이호철. 2003a. 농촌개발을 위한 역동적 지역사회개발모형 연구. 농촌사회 13(1): 7-49.
- 이성우임, 형백조중구. 2003b. 도시와 농촌의 고용기회 결정요인. 농촌경제 26(1): 1-24.
- 장우환. 2006. 경북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정책의 개선 방안. 산림경제연구 14(2): 19-34.
- 조광익, 김남조. 2002. 관광의 영향이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에 미치는 구조 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26(2): 31-51.
- 전영철, 정병용. 1999. 사회교환이론의 적용을 통한 관광개발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태도측정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1(1): 155-178.
- 최영희, 이원철, 이 훈. 2005. 동굴관광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및 영향요인: 지역애착과 태도이론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14(1): 193-215.
- Andriotis, K. and Vaughan, R. 2003. Urban residents'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the case of crete. *Journal of Travel Research*, 19(4): 665-690.
- Ap, J. 1992. Residents' perceptions on tourism impa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4): 665-690.
- Goudy, W.J. 1990. Community attachment in rural region. *Rural Sociology*, 55: 178-198.
- Jorgensen, B.S and Stedman, R.C. 2001. Sense of place as an attitude: Lakeshore owners' attitudes toward their propert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21: 233-248.
- Jurowski, C., Muzaffer, U., and Williams D.R. 1997. A theoretical analysis of host community resident reactions to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36(2): 3-11.
- McIntosh, R.W and Goeldner, C.R. 1990. *Tourism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New York: Wiley.
- Pretty, G.H., Chiputer, H.M., and Bramston, P. 2003. Sense of place amongst adolescents and adults in two rural Australian towns: The discriminating features of place attachment, sense of community and place dependence in relation to place ident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3: 273-287.
- Sampson, R. 1988. Local friendship ties and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 multilevel systematic mode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766-779.
- Sheldon, P.J. and Abenoja, T. 2001. Residents attitudes in a mature destination: the case of waikiki. *Tourism Management*, 22: 435-443.

(2007년 6월 11일 접수; 2007년 11월 9일 채택)